

5/24/20

설교 제목: 언약의 백성으로 연단되어져 가는 아브람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13 장 1-18 절

(창 13:1)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창 13:2)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창 13: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벨엘에 이르며 벨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창 13:4)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 13:5)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창 13:6)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창 13: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창 13: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창 13: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절관주** 창 20:15

(창 13: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절관주** 시 107:34, 창 19:17

(창 13:11)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창 13: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창 13:13)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 아브람이 헤브론으로 옮기다

(창 13: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창 13: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 13:16)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창 13: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창 13: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를 언약의 백성으로 연단해 가시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이런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람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자 아브람은 당장 닥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했던 나머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기근 가운데도 나일 강으로 인해 물 걱정이 없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람은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불신의 죄를 범하기까지 하면서 내려간 애굽이었건만 거기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 사래가 아름다운 고로 혹여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남편인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웠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사래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한 애굽 왕 바로가 아브람의 말을 믿고 그녀를 아내 삼고자 아브람에게 지참금까지 건네고 데려간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거짓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거짓말이 올무가 되어 점점 더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기근을 피하여 살고자 내려온 이곳에서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아내를 잃어버리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상대가 애굽의 왕인 만큼 어찌해 볼 도리도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아브람을 도와주십니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아브람을 불러 사래와 롯과 함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에서 떠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아브람이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 13:1)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창 13:2)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사일생 살아서 식솔들과 재물을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돌아 보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불신의 죄를 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뼈에 사뭇치도록 고마왔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이 사건을 겪으며 성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아브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변화시켜 복의 근원으로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처음 단을 쌓았던 벧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창 13: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벧엘에 이르며 벧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창 13:4)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곳은 아브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아브람은 처음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했던 것처럼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과 소들이 많아짐에 따라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창 13:5)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창 13:6)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창 13: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과 롯이 각각의 소유와 함께 같이 살기에도 비좁은 땅에 원주민들까지 살고 있었으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헤어져 따로 살 것을 제안하면서 먼저 땅을 택하라고 합니다.

(창 13: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창 13: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아브람의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조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넘겨 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 땅은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마당에 땅의 선택권을 양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람이 땅의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선뜻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람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애굽에서 겪었던 일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셔서 주신 언약을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람으로부터 선택권을 넘겨 받은 롯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창 13: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 13:11)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창 13: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주저함도 없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같고 애굽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택합니다.

롯의 처사가 배은망덕 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브람이 누구입니까?

작은 아버지로 자식이 없어 그동안 아버지를 일찍 여윈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데려다가 친아들같이 사랑하고 거두어 준 분입니다.

아무리 작은 아버지 아브람이 자신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권했더라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자신을 거두어준, 이제는 연로한 작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배려로 젊은 자신이 황폐한 땅을 선택하여 아브람으로 하여금 기름진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조카 롯의 결정을 본 아브람은 배신감과 허탈감으로 역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아브람은 롯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롯의 앞 길이 평탄할 리가 없지요.

저자 모세는 살짝 복선을 깔아 롯의 평탄치 못할 앞길을 예고 합니다.

(창 13:13)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이 성경 보는 묘미입니다.

롯이 인간적인 도리를 어기고 욕심을 부려 선택한 그곳은 악이 성행하는 곳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로 다 불살라 집니다.

막상 롯이 떠나자 아브람의 마음은 착잡하지 그지 없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친아들같이 여기고 애정을 쏟아 부어 기른 조카인데 그 공도 모르나 생각하니 꽤 씁하면서도 조카 롯이 빠져나간 그 자리가 썰렁하고 허전합니다.

왠지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무기력해집니다.

아브람의 그런 심정을 모르실리 없는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 오셔서 전에 주신 언약을 아브람에게 다시 주십니다.

(창 13: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창 13: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 13:16)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창 13: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창 13: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람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과 아브람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브람에게 직접 땅을 보여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의 머리 속에 형이상학적으로 새겨져 있던 이 언약이 아브람의 머리와 가슴 속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자리잡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아브람에게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브람은 마음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을 들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에 들었을 때와는 다릅니다.

아브람은 애굽에서의 사건을 겪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언약을 신실히 지켜나가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후에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할 때 전에 애굽 땅에 내려가 했던 불신의 행동을 다시 반복해 합니다.

(창 20:1)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창 20:2)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창 20:3)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창 20:4)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창 20:5)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창 20:6)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창 20: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애굽에 내려가서 했던 것 같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 사래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브람은 애굽 바로 왕과의 사이에 겪었던 일을 그랄 아비멜렉 왕과 사이에 또 다시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람을 구해 주십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순간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통해 성화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도 40 년의 광야 생활을 겪은 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신 후 무려 25 년을 연단시키며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람의 실수와 실패에도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며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생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바칠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혹독한 훈련을 통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화되어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화의 기간은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붙잡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고난과 연단을 이겨 최후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